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석기생산 시스템 연구」에 대한 토론문

김 권 중
중부고고학연구소

1. 자가소비형과 전문생산형의 구분 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의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가시적인 차별적 기준으로 개념을 한정하였다. 자료의 한계상 이러한 가설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또한 상대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 뿐 각종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가령 자가소비형의 경우 석기의 제작이 용이하거나 또는 석기의 제작을 필요로 하는 특정 기간이나 계절에 남겨진 주거지와 같은 경우에 전문생산형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2. 상대적인 기준이지만 석기생산 취락을 자가소비형 취락, 분업형 취락, 반전업형 취락, 전업형 취락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 가운데 반전업형 취락은 취락 내 자가 소비 단위의 반전업형 장인과 석기생산 전문취락으로 설정하였다. 취락의 생계를 농경을 기반으로 하되 석기의 생산과 관련된 제작품의 유통을 통해 생계의 비중이 분산되는 형태로 보고 있다. 반드시 농경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가? 생계의 비중이 분산된다면 어느 정도인가? 기준이 모호하다.

3. 석기의 유통은 소형 석기류 보다는 석검과 같이 특수한 용도의 석기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전기의 늦은 단계로 편년되는 팔계천유역의 매천동유적은 합인석부(이단병식석검)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이 내용의 의미를 확대 해석한 것이지 모르겠지만 혼펠스제 석검을 제외한 다른 석기의 생산에 대한 분석이 없었는데, 석기생산 전문취락 가운데 특정 석기를 제작하는 집단을 상정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 석기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것인가?

4. 고령의 대표적인 석기제작장 유적인 봉평리 575-1유적은 석기제작에서 1차 정형단계(큰때기와 잔때기)의 유적이고 이를 공급받는 동천동취락은 2차 정형단계(고타 및 마연)의 취락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 봉평리 575-1유적과 동천동취락은 어떠한 관계를 상

정할 수 있는가? 공급? 파견? 이를 증명할 근거도 함께 제시해주기 바란다.

5. 본 발표의 내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중 중요한 해석의 문제가 있다. 석기를 제작하는 것이 과연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우매한 생각이지만 특정 석기-석검(유절병식)과 같은 것을 제외하면 석기의 생산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전문성을 요하는가? 아니면 특정 석기의 제작과 사용을 특정인에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